수원특례시의회
SUWON SPECIAL CITY COUNCIL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일시 2026. 11. 10.(화) 14:00

장소 수원시의회 다목적실

[발제] **고영준** 전주공동체라디오 이사
김윤지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좌장]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토론] **서지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권미숙 매탄마을신문 편집장
김은정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주최 수원특례시의회 | **주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특례시의회
SUWON SPECIAL CITY COUNCIL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일시 2026. 11. 10.(화) 14:00

장소 수원시의회 다목적실

[발제] **고영준** 전주공동체라디오 이사
김윤지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좌장]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토론] **서지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권미숙 매탄마을신문 편집장
김은정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주최 수원특례시의회 | **주관** 수원시정연구원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진행순서

사회 : 임제린 수원시정연구원 성과확산팀장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10′)	개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등** ○ **환영사 및 축사** ○ **단체 기념사진 촬영**	
14:10~14:40(30′)	발제	○ **주제발표 1** –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과 조례 (고영준 전주공동체라디오 이사) ○ **주제발표 2** –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및 역할 (김윤지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14:40~15:35(55′)	토론	○ **지정토론**	좌장
15:35~15:55(2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5~16:00(05′)	폐회	○ **총평 및 마무리**	

패널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발 제	**고영준**	전주공동체라디오 이사
발 제	**김윤지**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좌 장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토 론	**서지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권미숙	매탄마을신문 편집장
	김은정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CONTENTS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Ⅰ 발제

❶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과 조례** ····· 1

고영준 | 전주공동체라디오 이사

❷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및 역할** ····· 23

김윤지 |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Ⅱ 지정토론

❶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대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 –
····· 45

서지연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❷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현장의 제언**
– 매탄마을신문의 14년 여정과 주민 주도 마을 기록의 명분 –
·····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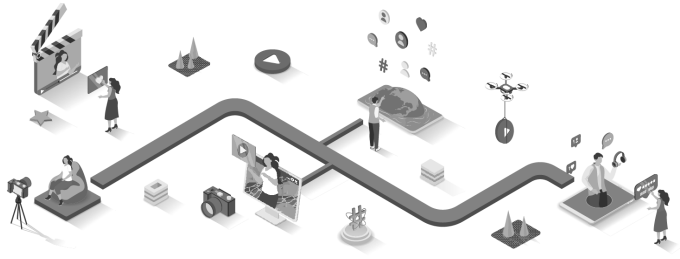
권미숙 | 매탄마을신문 편집장

❸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제도화 방향**
····· 51

김은정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❹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 제정은 행정의 책무이다.** ····· 57

민진영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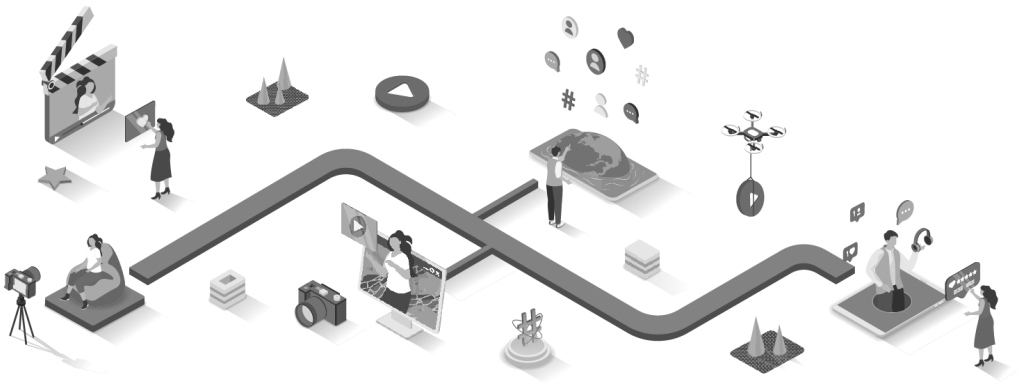
I

발제 ❶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과 조례

고영준

전주공동체라디오 이사



2026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토론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과 조례

— 전북·전주 사례로 살펴본 조례 제정의 의미와 현황

고영준(이칸도) 전주공동체라디오 이사

2026년 11월 10일(화) 14:00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



2026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토론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발제자 소개



고영준 (facebook ID 이칸도)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자문위원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사업 자문위원
- 전주평화동마을신문 편집·운영위원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운영위원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교육분과장
-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 제작자·이사
- 미디어교육 강사(2005~)

- 전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위원
- 전 전주시청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위원
- 전 전국미디어교육자협회 운영위원
- 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위원회 위원
- 전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
- 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위원회 위원
- 전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교육팀장·사무국장

[연구논문·저서]
전국 미디어센터·마을공동체미디어·미디어교육 실태조사(2019) - 방송통신위원회
경기지역 미디어센터·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및 활성화 방안(2019) - 경기도
마을미디어 워크북 <마을라디오 레시피> 저자(2021) - 시청자미디어재단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목차

마을의 목소리가
지역의 힘이 되는 사회,
조례와 지원이 만드는 변화



01 **발표 배경과 목적** 03
마을공동체미디어와 조례의 의미

02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현황** 06
확산되는 제도화, 그리고 남은 과제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 10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4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 15
지속적인 지원이 만드는 기반

05 **조례 이후, 지역의 변화** 21
전주의 지속과 안정화, 전북의 확장

06 **전북·전주 사례가 주는 시사점** 28
수원시 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01 | 발표 배경과 목적



01 발표 배경과 목적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에 주는 긍정적 효과

주민이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은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주민자치

지역 의제 발굴, 주민 의견 표현, 지역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를 넓힙니다.



공동체 활성화

이웃 간 소통, 관계망 형성, 협력 경험의 확대로 공동체 역량을 높입니다.



도시재생·지역활성화

지역의 역사와 공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주민참여 기반을 넓힙니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잡지 등 다양한 주민 주도 미디어 활동을 확장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넓히고, 지역의 기록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유네스코(UNESCO) 「Community Media」

- 유네스코는 공동체미디어가 지역의 정보·소통·참여 요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 또한 발전 인권, 역량 강화, 협력체계, 지속가능한 공적 재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이것은 특정 지역의 일시적 효과를 검증한 실증연구라기보다 국제기구의 정책적 평가와 원칙입니다.

참조: 김은규(2021),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한 연구, 유네스코(UNESCO) 「Community Media」

01 발표 배경과 목적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마을공동체미디어, 왜 제도적 지원인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주민미디어 활동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합니다.

예산·장비·공간

콘텐츠 제작, 장비 활용, 안정적인 활동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민활동가 교육

기초교육과 실습, 기획과 운영을 배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제작 지원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잡지 제작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행정, 미디어센터, 주민조직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부족

장비, 제작비, 교육비 등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과 역량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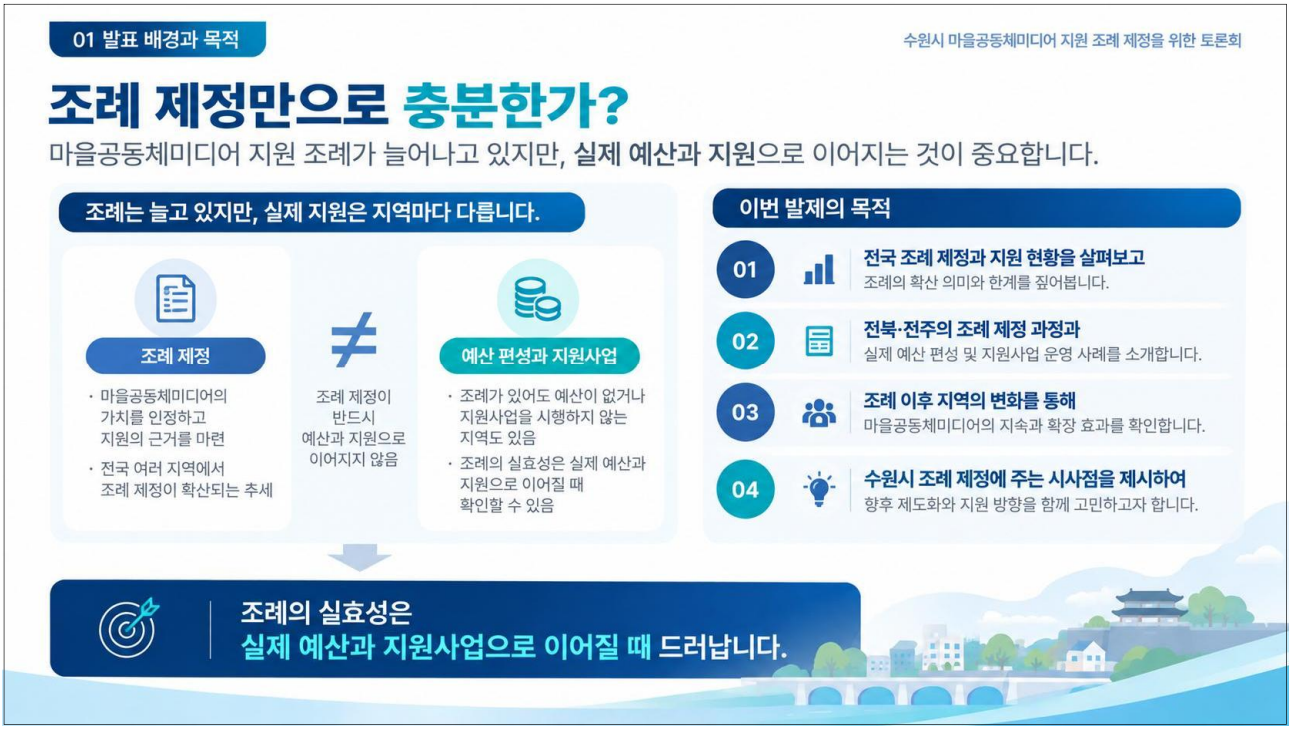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미비

단발성 사업만으로는 꾸준한 활동과 조직의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미디어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조: 김은규(2021), 유네스코(UNESCO) 「Community Media」


01 발표 배경과 목적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 제정만으로 충분한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예산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례는 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례 제정
·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
· 전국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추세
≠
조례 제정이 반드시 예산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음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
·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없거나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음
· 조례의 실효성은 실제 예산과 지원으로 이어질 때 확인할 수 있음
조례의 실효성은
실제 예산과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때 드러납니다.
이번 발제의 목적
01 전국 조례 제정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조례의 확산 의미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02 전북·전주의 조례 제정 과정과
실제 예산 편성 및 지원사업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03 조례 이후 지역의 변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과 확장 효과를 확인합니다.
04 수원시 조례 제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화와 지원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02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현황


02 전국 지원 조례 현황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확대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단체 수의 증가가 확인됩니다.
2019년
348곳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실태조사
186곳 증가
2019년 대비 약 53.4% 증가
2023년
534곳
전국 현황 조사
주민 주도 미디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중요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확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시청자미디어재단(2019), 전국 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강사 현황 조사 / 시청자미디어재단(2023), 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사업 정책 방향 연구


02 전국 지원 조례 현황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주민미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자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북·제주 조례 제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23곳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 시행 지자체
2021년 10월 기준,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32곳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독립 조례 제정 지자체
2026년 3월 기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독립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공동체라디오 별도 조례
2곳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
• 공주시 (2023년 12월 8일 제정)
• 광주광역시 (2024년 10월 제정)
총 34곳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관련 조례 시행 지자체
2026년 3월 기준 조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독립 조례 32곳 + 공동체라디오 별도 조례 2곳)
조례의 제정과 실제 예산·지원사업 운영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별로 그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2026년 3월 기준)

02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현황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역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독립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 수	해당 지자체
서울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부산	2	부산광역시 남구, 연제구
대구	4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인천	1	인천광역시
광주	2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대전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울산	3	울산광역시, 북구, 중구
세종	0	-
경기	0	-
강원	1	원주시
충북	1	충청북도
충남	1	충청남도
전북	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전남	1	전라남도
경북	0	-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32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독립 조례 제정 지자체
32곳 (2026년 3월 기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
2곳 (공주시, 광주광역시)

- 32곳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만을 위한 독립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수입니다.
- 다른 조례(미디어센터, 마을공동체, 미디어산업 등)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 공동체라디오 지원 조례 2곳은 독립 조례로 별도 제정된 조례입니다.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2026년 3월 기준)

02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현황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지역과 조례명

2026년 3월 기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독립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연번	지역	조례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3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4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5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6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7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8	강원 원주시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9	충청남도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10	충청북도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1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12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13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14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15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16	전북 전주시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연번	지역	조례명
17	전북 군산시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18	전라남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19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 조례
20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1	경남 김해시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2	경남 창원시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4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5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6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7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8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9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30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31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독립 조례 제정 지자체
32곳 (2026년 3월 기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
2곳 (공주시, 광주광역시)

구분별 현황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4곳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2026년 3월 기준)

02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현황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전국 32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는 조례별로 표현과 범위는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정의와 기본원칙	2 지자체의 책무	3 지원 사항	4 추진 체계	5 특징과 시사점
•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의 매체를 '마을미디어'로 정의 • 주민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향 • 공익성, 자율성, 독립적 운영 보장 등 기본원칙을 명시	• 광역자치단체는 도지사·시장, 기초자치단체는 구청장·시장의 책무 규정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 운영 보장과 자율성 존중	•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육, 인력양성, 컨설팅 • 시설·장비, 공간 지원 • 콘텐츠 제작, 유통·배급 지원 •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지원 •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위원회 설치·운영 (명칭과 구성은 조례별로 상이) • 전문기관·중간지원조직의 지정·위탁 근거 •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조례별로 용어, 지원범위, 추진체계, 위원회 구성 등 세부 내용에 차이 존재 • 영상, 음성, 인쇄 외에 방송, 신문 등 매체 범위를 넓게 포함하는 사례 다수 • 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지속 가능성을 강조 •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는 주민 주도의 미디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입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2026년 3월 기준)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되다

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활성화 T/F 결성

전북지역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약 1년간 조사·연구·교육·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

실태조사와 정책 논의 확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전북민연련, 전북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가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을 공동 조사하고 정책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2016년 5월 20일

정책 심포지엄 개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 경험과 제도적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전북도 지원 조례 제정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조례 제정은 행정이 먼저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활동하던 **공동체미디어의 요구**와 현장의 논의가 **제도화**로 이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참조: 최성은,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현황」; 손주화(2021); 박민(2021)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 제정,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다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지원을 위한 위원회·계획·예산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016~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실행 지연

조례가 제정됐지만 기본계획, 위원회 구성, 관련 예산 편성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2017년 말~2018년 3월

현장 단체 네트워크 결성

후속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자 전북지역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연대와 정책 대응을 강화했고, 2018년 3월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위원회 구성·첫 회의

조례에 규정된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면서 기본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2019~2022년 4년간 4대 분야 8개 사업, 총 2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다가 2022년부터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 실제 예산 확보**가 이어져야 제도의 실효성이 생깁니다.

참조: 최성은,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현황」; 박민(2021)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준비 과정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도의 경험,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로 이어지다

전북도에서 시작된 제도화의 흐름이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전주시 자체 지원 경험 축적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과 마을신문 네트워크 등 기존 활동을 바탕으로 경험과 필요성 축적

2016년 이후

전북도 조례와 네트워크 경험

전라북도 조례 제정 및 전북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책 논의와 민관협력 경험 축적

2020년

전주시 조례 제정 준비와 협의

전주시 담당부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주지역 마을미디어 단체, 시민사회 동이 조례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조례를 참고해 전주시의 지원 근거 마련 추진

2020년 5월 15일

전주시 조례 제정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조례와 별개로, 기초자치단체도 **지역의 활동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조: 손주화(2021), 「전북 최초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2020); 전주시 조례 제정 관련 관계자 증언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의 흐름

현장의 활동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 2016년 8월 25일

전라북도 조례안 발의

도의원 이해숙 외 7인 제출



2 2016년 12월 30일

전라북도 지원 조례 제정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3 2020년 2월 11일

전주시 조례안 입법예고

주민소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 목적



4 2020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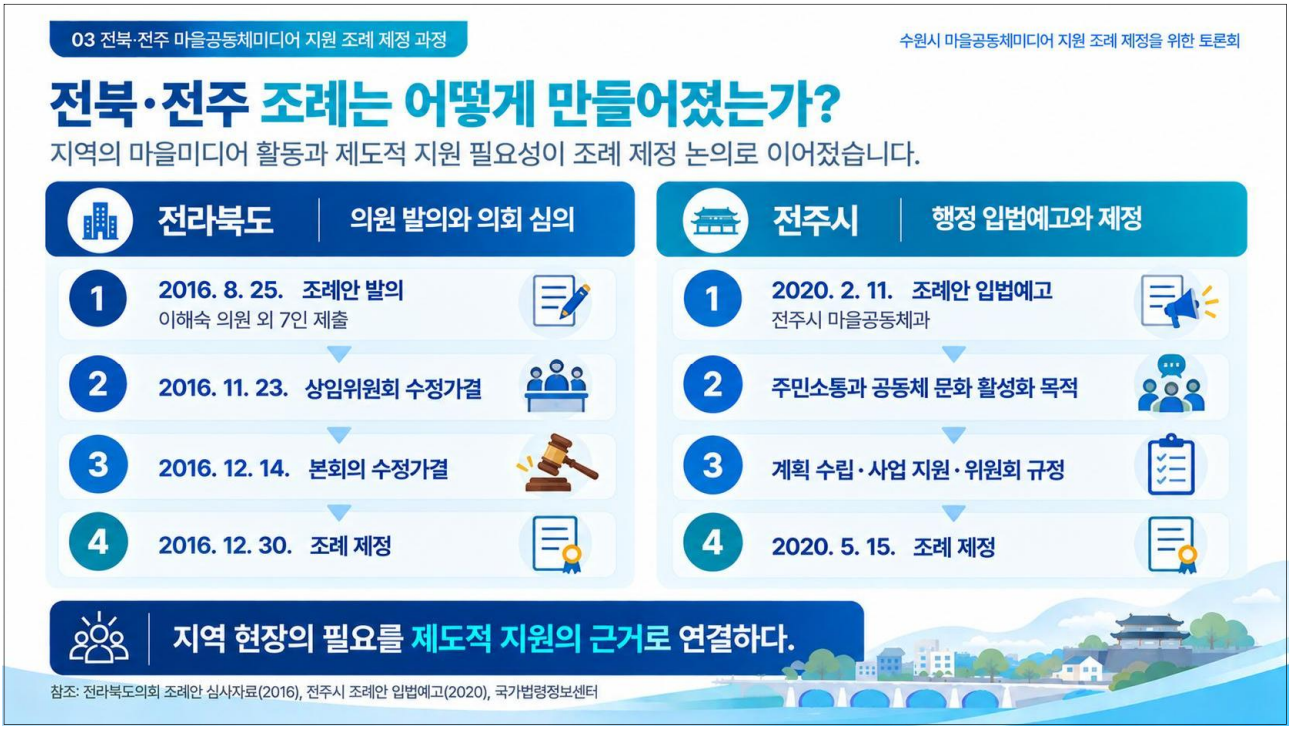
전주시 지원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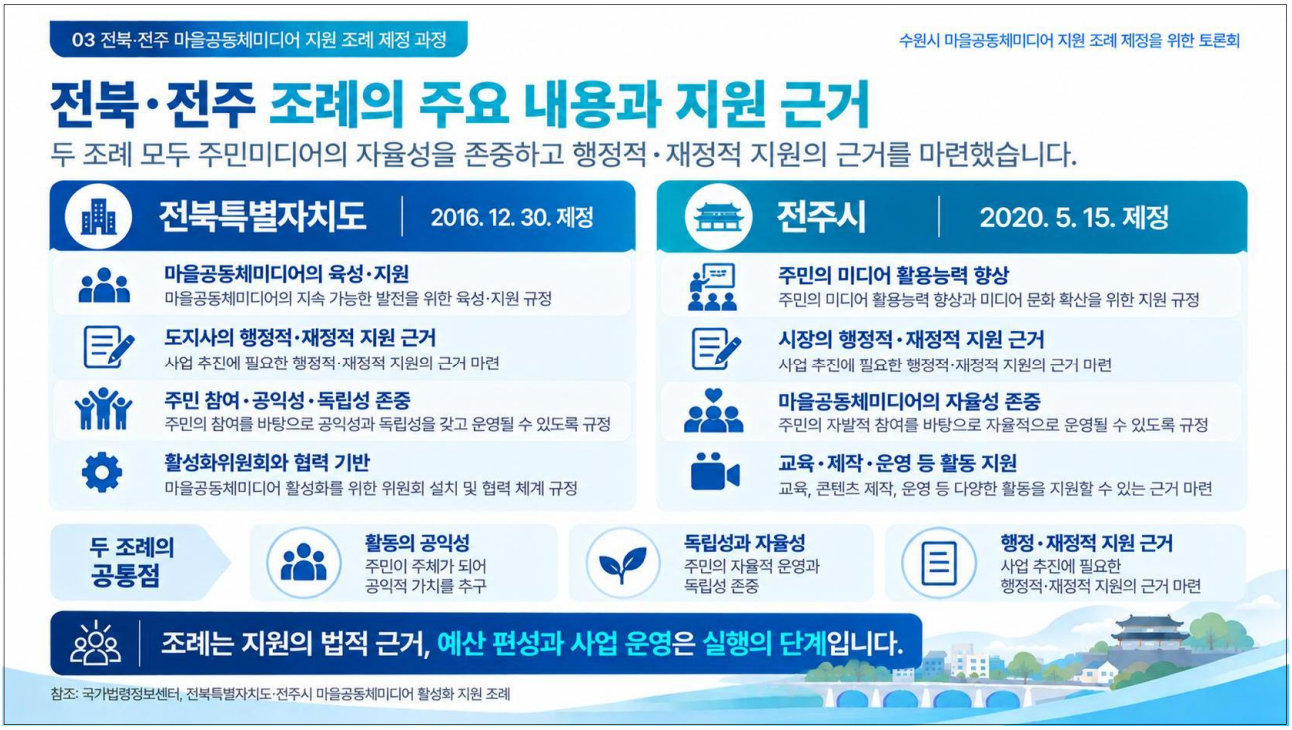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원 근거 마련



전북의 제도화 경험은 **전주시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조: 전라북도의회 조례안 심사자료(2016), 전주시 입법예고(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전주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조례 제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
의원 발의와 의회 심의
1 2016. 8. 25. 조례안 발의
이해숙 의원 외 7인 제출
2 2016. 11. 23. 상임위원회 수정가결
3 2016. 12. 14. 본회의 수정가결
4 2016. 12. 30. 조례 제정
전주시
행정 입법예고와 제정
1 2020. 2. 11. 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 마을공동체과
2 주민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목적
3 계획 수립·사업 지원·위원회 규정
4 2020. 5. 15. 조례 제정
지역 현장의 필요를 제도적 지원의 근거로 연결하다.
참조: 전라북도의회 조례안 심사자료(2016), 전주시 조례안 입법예고(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03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전주 조례의 주요 내용과 지원 근거
두 조례 모두 주민미디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16. 12. 30. 제정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지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 규정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주민 참여·공익성·독립성 존중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
활성화위원회와 협력 기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협력 체계 규정
전주시
2020. 5. 15. 제정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규정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자율성 존중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
교육·제작·운영 등 활동 지원
교육, 콘텐츠 제작,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두 조례의 공통점
활동의 공익성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익적 가치를 추구
독립성과 자율성
주민의 자율적 운영과 독립성 존중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조례는 지원의 법적 근거,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은 실행의 단계입니다.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04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 제정에서 실제 예산 지원으로

전북과 전주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 조례 제정



-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2 예산 편성



-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
-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지속적 지원의 기반

3 지원사업 추진



-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 교육, 컨설팅, 콘텐츠 제작, 장비·공간 지원 등
- 공모사업, 지속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4 지역의 변화



- 주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
-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 발굴
-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조례는 예산과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04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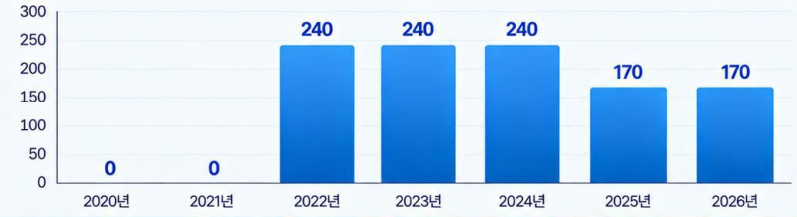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지원사업 예산 현황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례를 근거로 매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연도별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백만원)	0	0	240	240	240	170	170
전년 대비	-	-	-	-	-	-70	-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
2023년 이후 2억 4,000만원 수준에서 2025년부터 1억 7,000만원으로 편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공모사업,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장비·공간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운영

도내 마을미디어 생태계 확산
시·군 단위 마을미디어 활동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례를 근거로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자료(2020~2026)

04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주시 지원사업 예산과 운영 구조

전주시 자체 지원과 전북도 지원사업의 전주지역 참여 예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주지역 마을미디어 지원의 두 갈래

① 전주시 자체 지원

전주시 예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사업 운영

※ 연도별 확정 예산액은
2,000만원 내외

② 전북도 사업의 전주지역 참여

2023~2026년 사업계획서
연도별 신청 사업비

3,000만 원

※ 전북도 사업 신청액
전주시 자체 예산과 별도

집계할 때 구분할 사항

01 **재원 구분**
전주시 자체 사업과 도비 사업

02 **지원 형태**
- 전북도 지원사업 > 전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단체 직접 운영
- 전주시 지원사업 > 전주미디어센터 운영, 마을미디어단체 공모

03 **중복 합산 방지**
동일 사업·참여단체 예산 확인

확인 가능한 사업계획서 기준 수치만 표시

조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이 현장의 지속성을 뒷받침합니다.

참조: 2023~2026년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전주지역 신청서·사업계획서

04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 지원사업의 지역별 참여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은 매년 여러 시·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2026년 시·군별 참여 현황

(단위: 개)

2023~2026년
4년간
전북도 14개 시·군 중,
총 12개 시·군
92개 단체·공동체 참여

※ 연도별 중복 참여는 1개로 표기



연도별 참여 시·군 수

(단위: 개)

연 도	참여 시·군 수	비 고
2020년	-	지원사업 미추진(예산 0원)
2021년	-	지원사업 미추진(예산 0원)
2022년	8개	지원사업 추진(총 2억 4천만원)
2023년	10개	지원사업 추진(총 2억 4천만원)
2024년	8개	지원사업 추진(총 2억 4천만원)
2025년	8개	지원사업 추진(총 1억 7천만원)
2026년	7개	지원사업 추진(총 1억 7천만원)

지역별 참여 특징

- 전주 외에도 매년 여러 시·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가 참여
-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체가 지원사업에 참여
-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미디어 활동 기반이 점차 확대

도 조례를 근거로 전북 전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조: 2023~2026년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04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 편성과 지원사업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전주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지속성

전북과 전주는 조례를 근거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주관기관을 통한 공모·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전주시는 전주미디어센터를 통해 공모사업을 운영합니다.

단계별·유형별 지원
기초교육부터 콘텐츠 제작, 협력 네트워크까지
단계별(관심·공유·공감)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가 참여합니다.

사업비와 역량강화 병행
콘텐츠 제작비 지원과 함께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지속성을 위한 지원 요소

01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매년 지원사업이 이어지며, 담당과(전북도 농촌활력과, 전주시 공동체육성과)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2 **주관기관의 전문적 운영**
전문기관이 공모와 심사, 교육,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03 **지역 네트워크 확대**
참여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미디어 활동의 단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04 **다양한 자원 연계**
지자체, 미디어센터, 지역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 공간, 장비, 교육 등 다양한 자원을 지원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사업은 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조: 2023~2026년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05 | 조례 이후, 지역의 변화



05 조례 이후, 지역의 변화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 이후, 달라진 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속적인 지원사업은 기존 단체의 지속과 안정화, 새로운 단체의 형성과 지역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기존 단체의 지속과 안정화



활동의 지속성 확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잡지 동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지역 소통 강화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주제로 주민이 적접 취재하고 제작한
콘텐츠가 지역사회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안정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단체의 운영 기반이 강화되고,
활동가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외 시·군: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형성



새로운 마을미디어 단체의 등장
지원사업을 계기로 전주 외 여러 시·군에서
새로운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다양한 활동 전개
각 지역의 생활권과 의제를 반영한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잡지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네트워크 확산
시·군 단위의 활동이 서로 교류하며
전북 전역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기존의 활동을 지키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하며,
지역 곳곳에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뿌리내리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05 조례 이후, 지역의 변화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확대

조례와 지속적인 지원 이후, 마을공동체미디어 수와 활동 지역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수

29개 → 62개

2020년 대비 33개 증가

활동 시·군 수

8개 시·군 → 13개 시·군

5개 시·군 확대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조례와 지원체계 형성 이후
활동 규모와 지역적 범위가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참조: 2020년 수치는 전주·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도(고영준, 2020), 2026년 수치는 전북 마을미디어 현황 및 특성(박민, 2025), 2023~2026년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사업 계획서

05 조례 이후, 지역의 변화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주에서 전북 전역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확산

기존 활동 지역에서는 단체 수가 종가했고,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공동체미디어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총 29개 8개 시·군에서 활동



2026년 총 62개 13개 시·군에서 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수
29개 → 62개
33개 증가 · 약 113.8%

활동 시·군 수
8개 → 13개
5개 시·군 증가

- **전주 :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시도 증가**
  16개 → 22개 (6개 증가)
- **신규 활동 지역의 확산**
  김제·정읍·무주·임실·부안
  (5개 시·군 신규 활동)
- **전북 지역 내 마을미디어 인식 확산**

전북·전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와 지속적인 지원은
기존 활동의 지속과 **새로운 지역의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 1년 이상 지속활동하고 있는 단체·공동체 수
※ 1~2년 정도 휴지기인 단체·공동체 수 포함

참조: 전주·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도(고영준, 2020); 전북 마을미디어 현황 및 특성(박민, 2025);
2023~2026년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사업 계획서

05 조례 이후, 지역의 변화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후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잡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마을신문
우리 동네의 이야기와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라디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라디오 방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영상
지역의 사람과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 마을의 이야기를 다양한 플랫폼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을잡지
지역의 문화와 사람, 이야기를 잡지 형태로 제작해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로 지역을 담아냅니다

지역의 일상과 사람들
마을의 일상, 주민들의 이야기, 이웃의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전합니다.



지역 문화와 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주민 모임, 문화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
마을의 역사, 공간, 사람 등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로 제작합니다.



지역 현안과 주민 참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주민의 시각에서 다루고,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넓혀갑니다.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의 일상과 사람,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06 | 전북·전주 사례가 주는 시사점

06 전북·전주 사례가 주는 시사점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 제정은 시작, 실제 정책과 예산이 중요하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는 마을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발점입니다.
조례 이후에는 실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조례 제정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사업 시행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공모·선정하여 추진

예산 편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

지속적인 운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운영

조례의 존재보다 조례의 실행이 중요하다.
조례는 시작이며, 실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될 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06 전북·전주 사례가 주는 시사점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 제정 준비와 제정 이후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마다 인구, 행정 여건, 기존 활동 기반 등이 다릅니다.
조례 제정 준비부터 제정 이후 사업 추진까지, 지역의 특성과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01 지역 현황과 수요 파악



- 지역의 인구, 생활권, 지역 특성 파악
- 기존 마을미디어 활동 현황과 주민 수요 조사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 방향 설정

02 지역 주체의 의견 반영



- 주민,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 과정
- 지역의 현실과 필요가 조례 내용에 반영되도록 추진

03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 설계



- 지역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원 범위와 방식 설정
- 기존 사업과의 연계와 중복 방지
-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의 현실적 설계

04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 지속 수렴
- 지역 변화에 맞춘 제도와 사업 개선
- 주민 참여를 통한 평가와 환류 체계 운영

조례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06 전북·전주 사례가 주는 시사점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마을미디어 지원의 중심은 주민과 활동

마을미디어의 핵심은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전하는 주민이며, 실질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기반해야 합니다.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활동 중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01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원



- 다양한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
- 신규 주민 모임 발굴과 진입 지원
- 주민의 관심과 필요에 기반한 주제 발굴

02 주민 제작 역량 강화



- 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등 제작 교육 지원
-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제작자의 기획·취재·편집 역량 강화
- 세대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

03 지속적인 활동 지원



- 기존 마을미디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콘텐츠 제작, 유통, 홍보 등 실질적인 활동 지원
- 주민 제작자 간 교류와 협력 활동 지원
-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

04 주민이 만드는 지역의 이야기



- 주민의 시선으로 지역의 일상, 문제, 변화 동을 기록하고 공유
-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지원
-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지역 아카이브 활동 장려

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활동이 지속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주민과 활동을 중심에 둔 지원이 마을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06 전북·전주 사례가 주는 시사점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역 미디어 생태계와 민관협력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미디어 단체, 미디어센터, 지역 기관, 행정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미디어 생태계와 민관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01 다양한 주체의 협력



- 마을미디어 단체, 미디어센터, 지역 기관·단체, 행정의 협력
- 각 주체의 역할을 존중하는 파트너십 구축
- 공동사업, 네트워크, 자원 공유 등 협력 기반 마련

02 지역 네트워크와 교류



- 마을미디어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사관 확대
- 지역 간 우수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
-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과 정보 공유
- 지역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03 지역 자원의 연계



- 교육, 공간, 장비, 콘텐츠,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자원의 연계
- 기존 지역 인프라와의 협력
- 공공기관, 문화기관, 대학, 자역 단체 동과의 연계
- 마을미디어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발굴과 지원

04 주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



- 지원사업 기획·추진·평가 과정에 주민과 활동가 참여
-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 마련
-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협력 모델 발굴

마을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협력하는 지역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능합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연결될 때 마을미디어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수원과 전주의 닮은점과 지금

비슷한 출발점 위에서, 전주는 제도화를 이뤘고 수원은 지금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전주의 닮은점

1. 수원과 전주는 **도청소재지**다.
2. 수원과 전주는 **4대문**과 **한옥마을**이 있다.
3. 수원과 전주는 지역미디어센터에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2014~2015년**에 시작했다.
4. 수원과 전주는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준비와 포럼을 **2019년** 진행했다.
5. 수원과 전주는 공동체라디오가 **2021년**에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고, 이후 개국했다.

지금

전주

전주는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2016년 제정)와 연계해 시 담당과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수원

수원은 **2026년** 현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수원과 전주는 닮은 출발선 위에 있다. 이제 수원도 **지속가능한 공동체미디어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시점이다.
물론 전주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에 관한 한계와 활성화, 조례의 실효적 운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조문헌

1. 고영준·김양은·최성은(2019) 「전국 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강사운영 현황 조사」. 시청자미디어재단.
2. 고영준·원환섭(2019) 「경기도 미디어센터·마을공동체미디어 실태 조사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3. 고영준(2021). 「전국 마을미디어 운영 조례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2021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축제.
4. 박진우·반명진·이종임·허찬행(202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활동 지원사업' 정책 방향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
5. 박민·손주화(2023). 「2023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실태조사보고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6. 박민·손주화·최성은·허윤희(2025). 「2025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실태조사보고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7. 최성은(2021).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현황」. 동북4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 제정 시민토론회.
8. 박민(2021). 「2022년 전라북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정책 방향」. 2021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9. 김은규(2021).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실천에 대한 연구: 전북지역 마을신문 참여자들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60호.
10. 손주화(2021). 「전북 최초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회 서울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11. UNESCO. 「Community Media」. 유네스코 공식 웹사이트.
12.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제정·개정 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시·군별 신청서·사업계획서(2023~2026).

MEMO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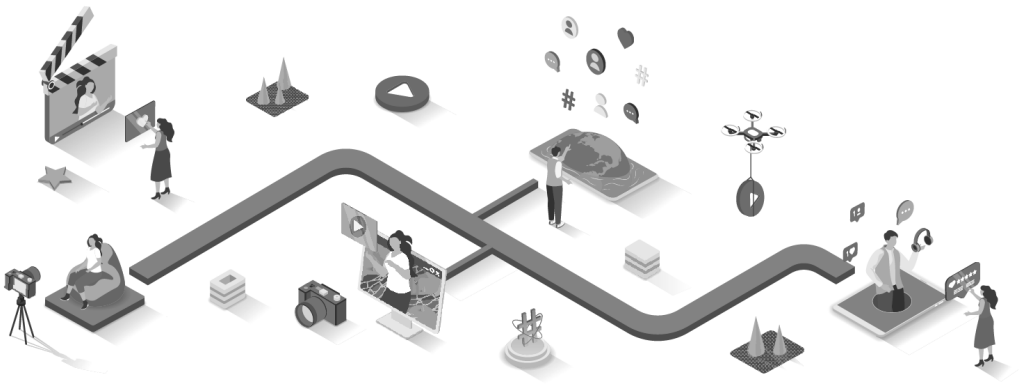
I

발제 ❷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및 역할

김윤지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2026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토론회 |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발제 2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및 역할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

김윤지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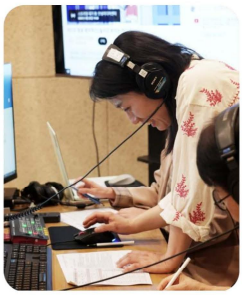
2026. 11. 10.(화) 14:00 - 16:00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

발제자 소개

현장에서 함께한 12년

2015년부터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 활동



김윤지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현재	경기공동체미디어정책추진단 ·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운영위원
현재	미디어교육 강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시청자미디어재단)
2024~5	「수원 지역미디어」 기록집 기획 (수원시미디어센터)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 선언문」 ·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대회 기획
2018	「수원지역 마을미디어 현황분석」 연구 책임 (수원시정연구원)
전	수원마을미디어연합 대표
전	마을라디오 「수원맘의 아름다운 라디오」 · 우리동네DJ 대표

2

목차

발제 순서

01 지원사업에서 시작된 성장 — 2014~2023,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출발

02 활동 주체의 다원화 — 세 주체의 확장과 접점

03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 지원 비중 · 수요 · 제도 환경의 변화

04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 지속성을 위한 제도 기반

05 AI 시대, 더 필요한 마을공동체미디어 — 기록 · 검증 · 연결

3

PART 01

지원사업에서 시작된 성장

2014~2023,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출발

PART 01 · 지원사업에서 시작된 성장

함께 걸어온 10여 년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2014~2026)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네트워크와 방송국으로 확장된 10여 년

출처: 「2023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소개(2026);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5

PART 02

활동 주체의 다원화

각 주체의 확장과 접점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생태계

수원시미디어센터 · 수원마을미디어연합 · 수원공동체라디오

	수원시미디어센터 중간지원조직 · 지역미디어 공모	수원마을미디어연합 활동가 · 단체 네트워크	수원공동체라디오 시민 참여형 방송국 · FM 96.3MHz
성격	중간지원조직 · 연 단위 공모	자발적 네트워크 (2017~)	시민 참여형 방송국 (2021~)
공적 인정	수원시 설치 · 수원문화재단 운영	기관 업무협약 · 축제 시민미디어홍보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가 지상파 방송
규모	2026년 12팀 선정	16개 단체 · 91명	조합원 약 220명
사람	교육 수강생 160명 (2026)	라디오 20 · 영상 48 · 신문 23	방송활동가 1~11기 · 60여 명
활동	콘텐츠 100건 (2026)	RE-ON 기자단 · 시민미디어홍보단	정규 프로그램 41개 · 연 6,205시간
협력	경콘진 · 경기권 센터 교류	수원시신중년센터 · 수원문화재단 등	업무협약 30건
재원	공모 지원금 3,000만원 (2026)	회비 · 외부 협력사업	경콘진 725만원 · 수원시 0원

● 각 주체 모두 공적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원 구조는 서로 다름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수원마을미디어연합 활동소개(2026.1);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자료(2025·2026), MOU 목록(2026)

7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서로 연결된 세 주체

수원시미디어센터 · 수원마을미디어연합 · 수원공동체라디오의 관계



● 각 주체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같은 시민과 단체를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해 옴

출처: 수원공동체라디오 MOU 목록(2026);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소개(2026.1);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8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수원시미디어센터 : 지역미디어 사업으로 지원

수원시미디어센터 · 2024~2025 지역미디어 활성화 사업



12팀
58명 · 2025

102편
오디오 · 영상

1,130명
누적 참여자

경력별 단계 지원 새싹 3 · 집중 6 · 동반 3팀
신규 팀부터 10년 차 팀까지 경력에 맞춰 함께 활동 (2025)

방송 유통 확장 OBS FM <경인 마을 라디오>
2024년 4개 단체 · 개인 3명 10회 송출

경기권 교류 거점 2025 경기권 미디어센터 성과공유회
지역센터 최초 수원 개최 · 2024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성과공유회 3팀 수상

10년의 기록 리마인드 사례집 → 2025 기록집
2024 사례집 21개 단체 수록, 2025 좌담회로 정책 과제 정리

● 지역미디어 사업은 단계별 공모와 교류 · 기록의 기반으로 확장됨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2025 수원지역미디어 기록집」(2025.12), 「2024 수원 지역미디어 리마인드」 사례집(2024.12)

9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수원마을미디어연합 : 지역 기관과의 협력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네트워크의 외부 협력 (2024~2026)

2026 수원시신중 년센터	업무협약 · 'RE-ON 기자단' 운영 신중년 세대의 지역 기자 활동
2025~2026 수원화성문화제	<시민미디어홍보단> 수행 대표 축제의 시민 시선 기록 · 아카이빙
2025 수원시미디어센터	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 10개 과정 운영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2024 협약)
2025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회원 18명이 체험부스 10개 운영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 수원 밖으로





● 네트워크는 신중년 · 축제 등 지역 기관이 찾는 시민 미디어 창구로 확장됨

출처: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소개(2026.1); 회원 현황(2026.1); 「2025 수원지역미디어 기록집」(2025.12)

10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수원마을미디어연합 : 현장의 기록

지역 기관과 함께한 최근 활동 (2025~2026)



● 2026.5 어린이 · 청소년 와글와글놀이터



● 2026.5~ 신중년센터 RE-ON 기자단



● 2026.2 수원시신중년센터 업무협약



● 2025.10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부스



● 2025.5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정기 모임



● 2025.4 마을미디어 공동체교육

● 회원들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지역 기관과의 협력으로 넓어짐

출처: 수원마을미디어연합 활동소개(2026); 사진 제공 수원마을미디어연합 · e수원뉴스 · 수원시신중년센터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수원공동체라디오: 마이크 앞에 선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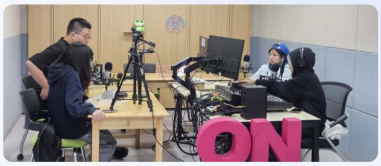
시민 · 어르신 · 청소년 · 여성 · 장애인 · 이주민이 직접 만드는 방송



● 방송활동가 양성 · 1~11기



● BB방송국 · 밤밭노인복지관



● 물고을 라디오 · 학교 밖 청소년



● 여성 재난안전리더 · 4.16재단



● 장판정담 · 장애 당사자 진행



● 결혼이주여성 한국살이

● 방송국을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로 성장

출처: 수원공동체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2026);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자료(2025·2026)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수원공동체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및 사회적 소수자 방송 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허가 신청서 공익성 편성 실적 (2023.6~2025.11)

시민 참여

방송활동가 1~11기

60여 명

정규 프로그램 41개
송출의 70%가 시민 참여 프로그램

누구나 만드는 방송 · 퍼블릭 액세스

사회적 소수자 유형별 편성 시간 (2023.6~2025.11)

어린이 · 청소년	해피타임 · 물고을 라디오(물고을대안학교)	594시간
노인	BB방송국(밤밭노인복지관) · 시가 흐르는 냇물	523시간
여성 · 재난	안전지도(4.16재단) · 여성 재난안전리더 특집	449시간
장애인	장판정담(장애 당사자 진행) · 맛점 라디오(장애인종합복지관)	201시간
다문화 ·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한국살이 · 은재탐방	90시간

공익성 편성 합계 약 1,857시간 (111,400분) · 2024년 유형별 계획 대비 이행률 113~208%

● 허가 목적인 '사회적 소수자 방송 접근권'을 편성으로 실천하는 시민 참여형 방송국

출처: 수원공동체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2026),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105~118쪽). 시간은 유형별 편성 합계를 시간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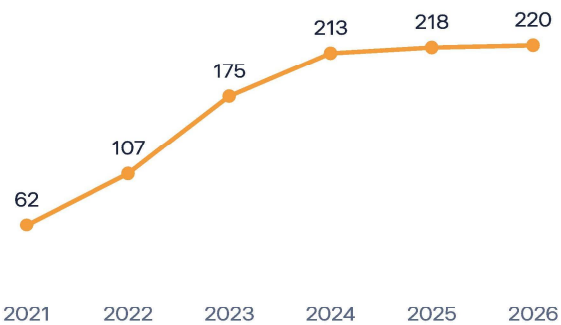
13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꾸준히 성장하는 시민 참여형 방송국

"수원공동체라디오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방송이 활성화" —「2025 수원지역미디어 기록집」에서

조합원 수 (누적, 명)



41개
정규 프로그램

6,205시간
2025년 연간 송출

70%
시민 참여 프로그램 비중

11기
방송활동가 · 누적 60여 명

● 조합원 3.5배, 송출 시간의 70%가 시민 프로그램인 지역 방송으로 성장

출처: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자료(2025·2026); 2026년은 조합 내부 집계

14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지원 대상에서 지원 주체로

다섯 가지 축의 변화 (2014 → 2026)

	2014	2026
사람	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 수강생	방송활동가 양성 1~11기 · 60여 명
매체	라디오 · 마을신문 · 영상	지상파 FM 96.3MHz · 연 6,205시간
공간	센터 시설 · 장비 대여	방송국 · 기관 내 스튜디오
관계	공모 선정 단체	업무협약 30건의 지역 파트너
재원	시 공모사업	경기도(경콘진) · 외부 공모 · 자체 사업

● 지원받던 시민이 다른 시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로 성장

출처: 「수원지역 마을미디어 현황분석」(2018);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자료(2025·2026); MOU 목록(2026) 15

PART 02 · 활동 주체의 다원화

접점과 고유 영역으로 확장

확장 이후 세 주체의 공동 활동과 고유 활동

수원마을미디어연합

고유 활동
- 활동가 · 단체 네트워크 운영
- 신중년센터 RE-ON 기자단
- 수원화성문화제 시민미디어홍보단
-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참여

지원 근거 없음

접점: 공모 참여 · 교육 · 협약

수원시미디어센터

고유 활동
- 지역미디어 공모 (연 12팀)
- 시민 미디어교육
- 장비 · 공간 대여
- 방송 유통 연계

미디어센터 운영 조례

접점: 활동가 양성 · 경콘진 · 중계

수원공동체라디오

고유 활동
- FM 96.3MHz 매일 송출
- 방송활동가 양성 (11기)
- 시니어 · 청소년 · 재난안전리더
- 지역 기관 협력 프로그램

수원시 지원 근거 없음

접점 수원마을미디어연합 ↔ 수원공동체라디오 : 업무협약(2022) · 회원 방송 참여 · 공동 행사

● 접점은 이어가되, 각자의 고유 활동이 지속되려면 독립된 지원 체계가 필요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소개(2026.1); 수원공동체라디오 총회 자료(2025·2026), MOU 목록(2026) 16

PART 03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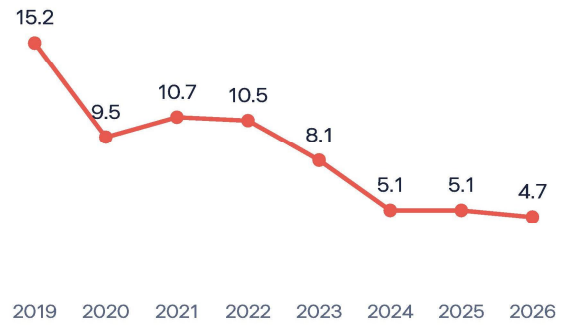
지원 비중 · 수요 · 제도 환경의 변화

PART 03 ·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줄어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비중

미디어센터 예산 대비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2019~2026)

공모 지원금 비중 (%)



연도	센터 예산	공모 지원금	비중
2019	4억 9,389만	7,500만	15.2%
2020	5억 2,665만	5,000만	9.5%
2021	4억 1,895만	4,500만	10.7%
2022	4억 3,000만	4,500만	10.5%
2023	4억 3,035만	3,500만	8.1%
2024	6억 2,291만	3,150만	5.1%
2025	5억 8,759만	3,000만	5.1%
2026	6억 4,067만	3,000만	4.7%

● **센터 예산은 30% 늘었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 공모 비중은 15.2%에서 4.7%로 줄어듦**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센터 예산은 추경 포함, 2026년 공모 집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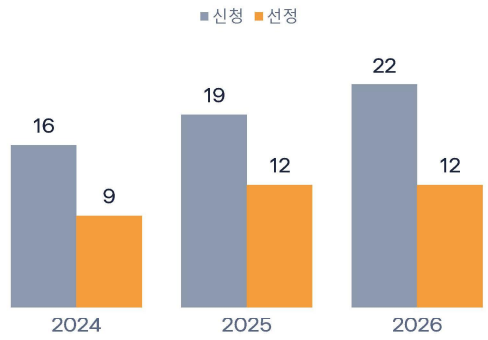
18

PART 03 ·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늘어나는 수요, 줄어드는 지원

지역미디어 공모 신청 · 선정 현황 (2024~2026)

공모 신청 · 선정 단체 수



+38%
공모 신청 단체
16 → 22곳

−24%
평균 지원금
330만 → 250만원

55%
선정률 (2026)
22곳 신청 · 12곳 선정

1명
담당 인력
정회원 관리 · 장비 대여 겸임
운영직 직원 채용 예정(2027)

● 신청 단체는 늘었지만 한 단체가 받는 지원은 줄었음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2026년은 10월 기준, 평균 지원금은 센터 회신 기준

19

PART 03 ·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신규 발굴과 단계별 성장 지원 사이

지역미디어 공모 선정 단체의 신규 · 지속 구성과 지원 유형 (2024~2026)

연도	선정	지원 유형 · 팀당 지원금	신규 / 지속
2024	9팀	새싹형 7팀 약 300만원 동반형 2팀 400만원	비교 기준
2025	12팀	새싹형 3팀 150만원 집중형 6팀 약 250만원 동반형 3팀 175~350만원	신규 5 · 지속 7
2026	12팀	성장형 10팀 200만원 협력형 2팀 500만원	신규 7 · 지속 5

단계 구조의 변화
2025 새싹 → 집중 → 동반 3단계 ▶ 2026 성장 · 협력 2단계
처음 선정된 팀과 3년째 활동한 팀이 같은 200만원을 받음

42→58%
신규 단체 비율
선정 12팀 중 5팀 → 7팀
(2025 → 2026)

31→47%
신규 단체 지원금 비중
공모 지원금 중 신규 팀 몫

84→33%
상위 단계 지원 비중
집중 · 동반형(2025)
→ 협력형(2026)

−33%
3년 연속 팀 지원금
약 300만 → 250만
→ 200만원 (2024~2026)

● 신규 발굴은 늘었지만, 공모 하나로는 기존 단체의 단계별 성장까지 함께 지원하기 어려움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현황 2024~2026」(2026.8). 신규 = 2024년 이후 첫 선정 단체, 2024년은 이전 자료가 없어 비교 기준 연도로 둠

20

PART 03 ·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2024년, 달라진 제도 환경

센터 예산 · 지역미디어 사업 · 조례 정의

+45%
미디어센터 예산
4억 3,035만 → 6억 2,291만원

−10%
지역미디어 공모
3,500만 → 3,150만원

사업 확장
마을공동체미디어 → 지역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진화한 형태로 사업 범위 확대

정의 삭제
미디어센터 조례 전부개정
2024.7.16. '마을미디어' 정의 조항 삭제

● 지역미디어로 넓어진 만큼,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전담하는 근거는 약해짐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2024 수원 지역미디어 리마인드」 사례집; 의정토론회 운영계획(안)(2026.10)

21

PART 03 ·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지원사업 밖 활동 영역

현행 지역미디어 공모사업으로 포괄되지 않는 활동

활동 영역	현재 활동	현행 공모사업	필요한 지원
공동체라디오	FM 96.3MHz · 연 6,205시간	수원시 보조금 0원	방송국 운영 · 시설 지원 근거
기관 협력 팀	시니어 · 재난안전리더 · 학교 밖 청소년 방송팀	팀 단위 소액 · 1년 단위	기관 연계 상시 프로그램
네트워크	수원마을미디어연합 16개 단체 · 91명	지원 항목 없음	네트워크 운영 · 정책 참여
공간 · 장비	방송국 스튜디오 · 복지관 스튜디오	거점공간 지원 없음 (2024~2026)	동 단위 거점 · 장비
사람	방송활동가 1~11기 · 60여 명	경기도 예산 (1,000만 → 725만원)	상근 활동가 · 보수 교육

중간지원조직의 한계 소관 기관 변경(청소년육성재단 → 지속가능도시재단 → 수원문화재단)과 일시적 담당 인력 1명 체계로 다양한 주체를 지원하기 어려움

● 공동체라디오 · 네트워크 · 기관 협력 팀은 현행 지원사업의 범위 밖에 있음

출처: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자료(2026);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2026.10)

22

PART 03 · 단일 공모 중심의 지원

현장과 연구가 함께 짚은 구조적 과제

「2025 수원지역미디어 기록집」 좌담회 '지역에서 시작된 미디어, 변화를 말하다' (수원시미디어센터 발간)



연속성

"단년도 예산, 중장기 계획 부재로 사업 연속성이 약해짐"

민진영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지원 구조

"공모사업은 시즌제이고 예산은 늘 빠듯함. 장기 프로젝트를 이어갈 구조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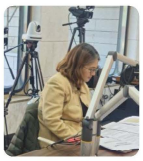
서승원 · 영상작가 (2015년부터 행궁동 주민 영화)



공공 기록

"20년 넘게 이어 온 영통 단오제, 공식 아카이브에는 자료가 거의 없음"

채서연 · 라디오영통 대표



지속 구조

"공동체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적정한 공공 지원과 자립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최지연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센터가 펴낸 기록집에서 활동가와 정책 연구자 모두 '단년도 구조'와 '연속성'을 과제로 꼽음

출처: 수원시미디어센터, 「2025 수원지역미디어 기록집」(2025.12) 3장 좌담회 '지역에서 시작된 미디어, 변화를 말하다'

23

PART 04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지속성을 위한 제도 기반

PART 04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해외 커뮤니티미디어의 제도 기반

법적 인정과 상시 지원 — 사업이 아닌 하나의 '부문'으로

국가 · 기구	제도 근거	지원 방식	규모 · 특징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선언 (2009)	법적 인정 · 구조적 지원 · 재원 권고	'제3의 미디어 부문'으로 규정
프랑스	통신자유법 (1986) · FSER	비영리 라디오 운영 기금	706개 라디오 · 3,570만 유로 (2024)
독일	미디어국가협약 §112	방송수신료 일부로 열린채널 지원	주 미디어청이 법률에 따라 배분
영국	Community Radio Fund	공동체라디오 핵심 운영비 지원	100만 파운드 (2025-26)
호주	연방 공동체방송 프로그램	독립 재단(CBF)이 정부 재원 배분	연 2천만 호주달러 이상
미국	케이블법 (1984) · 지역 계약	케이블 수입 일부로 공공채널(PEG) 운영	지역 공공 회의 중계 · 시민 교육

● **해외는 커뮤니티미디어를 하나의 '부문'으로 인정하고, 운영을 상시 지원함**

출처: Council of Europe, Declaration on community media(2009); 프랑스 상원 2024 예산보고서(FSER);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 §112; Ofcom(2025.5); 호주 인프라교통부; CCTV Center for Media & Democracy

25

PART 04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지속성을 위한 제도 기반

미디어센터 조례 내 규정과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의 비교

미디어센터 조례 내 규정

- 성격 시설(미디어센터) 운영 조례
- 대상 센터 사업 참여 팀 중심
- 안정성 2024년 개정 시 정의 삭제
- 연속성 소관 기관 변경의 영향
- 공동체라디오 공동체라디오 포함 근거 없음
- 지원 체계 센터 공모사업 내 배분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

- 성격 **시민 활동 주체 지원 조례**
- 대상 **단체 · 네트워크 · 공동체라디오**
- 안정성 **독립 근거로 유지**
- 연속성 **전담부서 · 위원회로 연속성**
- 공동체라디오 **경기도 조례와 같이 범위 포함**
- 지원 체계 **연간 지원계획 · 지원 체계 근거**

● **독립된 근거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성에 더 유리함**

출처: 의정토론회 전략 정리(TF, 2026.10);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6.3.4 전부개정)

26

PART 04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제도 기반의 여섯 가지 요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것

01 정의와 범위
영상 · 음성 · 인쇄 · 공동체라디오 포함

02 연간 지원계획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다년도 지원 체계

03 전담부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전담부서 지정
행정 연속성 확보

04 위원회
민관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치

05 공간 · 사람
동 단위 거점 공간 · 장비
상근 활동가 · 보수 교육

06 지원 체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기관 설치 근거
위탁 운영 가능

● 다양해진 활동을 인정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전담하는 부서와 사업이 지속되는 기반

출처: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회); 의정토론회 전략 정리(TF) 27

PART 04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제도 기반 위에서 그려지는 다음 단계

현장에서 확인된 선행 실천과, 지속을 위한 제도적 조건

지역 아카이브
마을의 공식 기록 저장소
현재 화성문화제 홍보단 · 리마인드 사례집
기반 연간 지원계획 · 공간

생활안전 지역 채널
재난 때 작동하는 동네 소통망
현재 여성 재난안전리더 방송팀 · 시범방송 6편
기반 지원 체계 · 기관 협력

기관 연계 방송망
기관마다 작은 스튜디오
현재 밤밭노인복지관 스튜디오 · 협약 30건
기반 공간 · 장비 거점

시민 팩트체크
AI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현재 재난안전리더 · 미디어강사 양성
기반 연간 지원계획

시민 공론장
의회 · 행정을 주민 언어로
현재 성과공유회 · 좌담회 중계
기반 전담부서 · 위원회

일이 되는 활동
활동가가 보수를 받는 구조
현재 방송활동가 60여 명 · 프로그램 41개
기반 상근 활동가 · 보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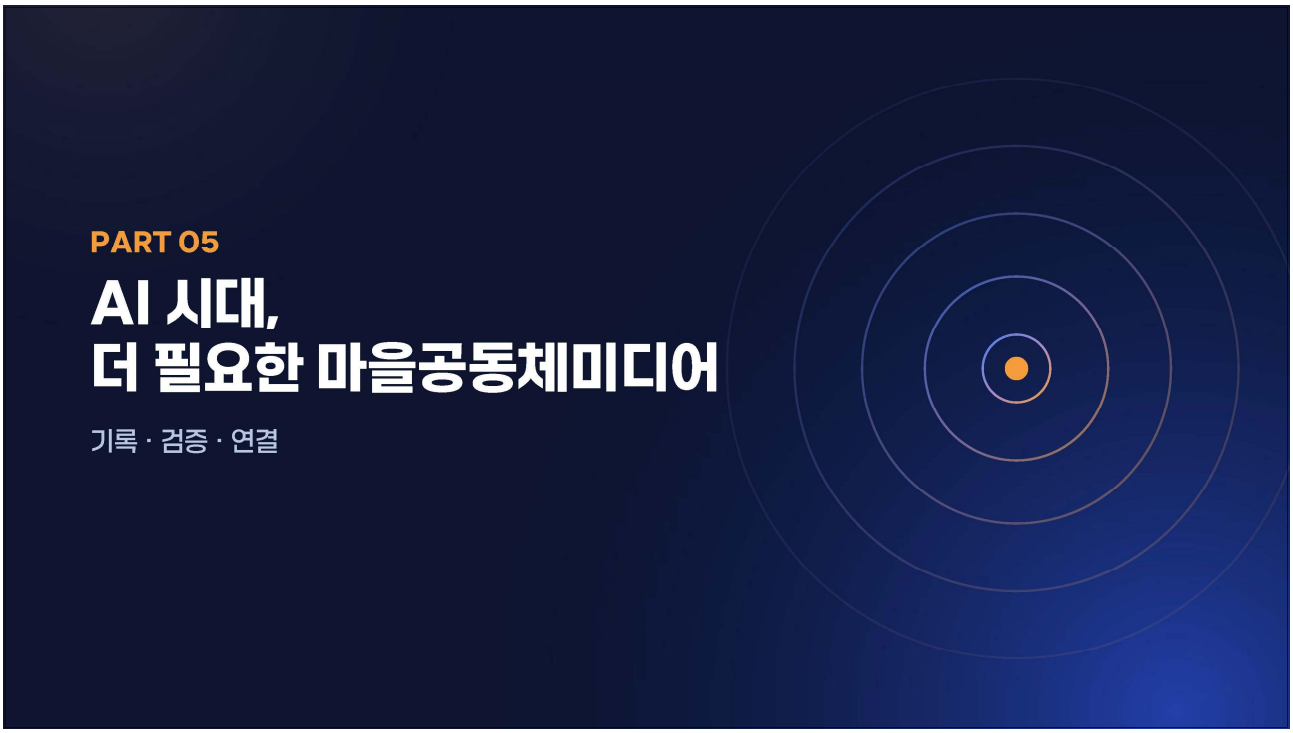
● 가능성은 현장에서 이미 확인됨. 지속을 결정하는 것은 독립된 제도 기반

출처: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자료(2025·2026), MOU 목록(2026);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소개(2026.1) 28

PART 05

AI 시대, 더 필요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록 · 검증 · 연결



PART 05 · AI 시대, 더 필요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달라지는 정보 환경

기록 · 검증 · 연결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 – 생성형 AI 이후 뉴스 이용과 신뢰의 변화

01 기록 기록되지 않은 지역은 빠진다	02 검증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늘어난다	03 연결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213곳 **지역 뉴스가 사라진 미국 카운티** 약 5천만 명 지역 뉴스 접근 제한	**14%** **AI 챗봇으로 뉴스를 보는 한국인** 2025년 7% → 2026년 14%	**30%** **한국의 뉴스 신뢰도** 2026년, 세계 평균 37%
데이터 공백 **기록이 없으면 AI 답에서 빠짐** 왜곡된 정보가 그 자리를 채움	**1,121개** **AI가 만든 '뉴스 사이트'** 사람의 검수 없이 운영 (2024.11)	**−18** **AI 뉴스에 대한 신뢰 인식** 사람이 관여한 뉴스 선호 (순점수)

AI가 정보의 입구가 될수록, 지역의 1차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하고 잇는 일이 더 중요해짐

출처: Medill (2025); Golebiewski & boyd (2019), Data Voids; Reuters Institute DNR 2025 · 2026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NewsGuard (2024.11)

30

PART 05 · AI 시대, 더 필요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 가지 원리

기록 · 검증 · 연결을 이끄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원리

01 기록 · Representation

재현의 선택

방송은 누군가 고른 이야기다.
나도 내 이야기를 고를 수 있다.

AI 시대에는
지역 뉴스가 사라진 자리,
AI의 답도 누군가 고른 데이터의 결과.
마을이 스스로 고르고 남겨야 함

→ 공백을 채우는 1차 기록

02 검증 · Privacy Boundary

자기노출의 경계

힘든 이야기는
내가 정한 만큼만 꺼낼 수 있다.

AI 시대에는
검수 없는 AI 정보가 늘수록,
내 이야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스스로 정하고
다르게 요약되면 바로잡음

→ AI 정보를 확인하는 현장

03 연결 · Right to Communicate

소통할 권리

듣는 사람의 반응이
이야기를 완성한다.

AI 시대에는
뉴스 신뢰가 낮을수록,
받기만 하는 이용자가 아닌
말하고 응답받는 시민의 관계가 신뢰를 만듦

→ 알고리즘 밖의 신뢰망

● 미디어 리터러시는 읽는 힘을 넘어, 직접 고르고 바로잡고 나누는 시민의 힘

근거 이론: Hall (1997); Kellner & Share (2007) · Petronio (2002), CPM 이론 · d'Arcy (1969); UNESCO 맥브라이드 보고서 (1980)

31

PART 05 · AI 시대, 더 필요한 마을공동체미디어

AI 시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

재현의 선택은 기록으로, 자기노출의 경계는 검증으로, 소통할 권리는 연결로

01 기록
공백을 채우는 1차 기록

지역 뉴스가 사라진 자리,
마을이 직접 고른 기록이
지역의 원천 자료가 됨

재현의 선택

02 검증
AI 정보를 확인하는 현장

AI가 만든 우리 동네 정보를
주민과 당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잡는 팩트체크

자기노출의 경계

03 연결
알고리즘 밖의 신뢰망

사람이 전하는 뉴스를 더 믿는 시대,
이웃이 듣고 답하는 방송이
평소엔 관계를, 재난 땐 소통망을

소통할 권리

기록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이미 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요약하는 시대, 지역 이야기는 주민이 직접 씁니다.

출처: Golebiewski & boyd (2019), Data Voids; NewsGuard (2024.11);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5;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 선언문

32


지역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관심은 활동을 시작하고, 제도는 연속성을 만듭니다
전담 부서
지속적 지원 사업
독립적 제도 근거
감사합니다 | 김윤지 · 수원공동체라디오


참고자료
참고자료 ①
수원 현황 · 수원공동체라디오 · 제도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수원시미디어센터 제공 자료 (예산 · 공모 · 교육 현황, 2026.10)
수원시미디어센터, 「2025 수원지역미디어 기록집」 (2025.12)
수원시미디어센터, 「2024 수원 지역미디어 리마인드」 사례집 (2024.12)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지역 마을미디어 현황분석」 (2018)
「2023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2023)
수원공동체라디오 · 네트워크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자료 (2025 · 2026)
수원공동체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2026)
수원공동체라디오 업무협약(MOU) 목록 (2026)
수원마을미디어연합 활동소개 · 회원 현황 (2026.1)
제도 · 조례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6.3.4)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00000700403 3&histNo=003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책위원회 초안)
「2023 마을공동체미디어 선언문」 (2023.3.18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1988
34

참고자료

참고자료 ②

해외 커뮤니티미디어 · AI 시대 정보 환경

해외 커뮤니티미디어

Council of Europe, Declaration on the role of community media (2009)	https://www.coe.int/en/web/freedom-expression/community-media
프랑스 상원, 2024 예산보고서 · 라디오 지원기금(FSER)	https://www.senat.fr/rap/l23-128-319/l23-128-3194.html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 §112 · 열린채널 지원	https://lxgesetze.de/mstv/112
Ofcom, Significant boost to Community Radio Fund (2025.5)	https://www.ofcom.org.uk/tv-radio-and-on-demand/community-radio/significant-boost-to-community-radio-fund
호주 인프라교통부, More support for community broadcasting	https://www.infrastructure.gov.au/department/media/news/more-support-community-broadcasting
CCTV Center for Media & Democracy (미국 PEG 공공채널)	https://cctv.org

AI · 정보 환경 · 미디어 리터러시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5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25-06/Digital_News-Report_2025.pdf
한국언론진흥재단, Digital News Report 2026 한국 결과 (뉴시스, 2026.6.1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6_0003671612
Reuters Institute, Generative AI and News Report 2025 (Nieman Lab)	https://www.niemanlab.org/?p=243842
NewsGuard, AI-generated news sites (2024.11)	https://www.newsguardtech.com/special-reports/ai-tracking-center/
Medill, The State of Local News 2025	https://www.medill.northwestern.edu/news/2025/news-deserts-hit-new-high-and-50-million-have-limited-access-to-local-news-study-finds.html
Golebiewski & boyd (2019), Data Voids, Data & Society	https://datasociety.net/library/data-voids/
Kellner & Share (2007); Couldry (2010), Why Voice Matters	https://doi.org/10.1007/s11519-007-0004-2

35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Ⅱ

지정토론

❶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대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 –
서지연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❷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현장의 제언**
– 매탄마을신문의 14년 여정과 주민 주도 마을 기록의 명분 –
권미숙 | 매탄마을신문 편집장

❸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제도화 방향**
김은정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❹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 제정은 행정의 책무이다.**
민진영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지정토론 ❶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대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 –

서지연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1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

필자는 십수 년간 매탄마을신문을 시작으로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공동체라디오에 이르기까지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날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닌 가치와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현장의 경험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히 마을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이자, 우리가 살아온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이며, 주민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민주시민 참여의 장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닌 핵심적인 공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은 그동안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성장과 확산을 이끌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으며, 많은 주민이 교육과 제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경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만큼이나 돌아봐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이 모여 마을미디어 단체를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체가 해체되거나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콘텐츠와 흩어진 활동의 흔적은 그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원이라는 도시의 변화와 주민들의 삶,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수원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산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활용해 왔을까요?

활동하던 단체가 사라지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콘텐츠도 함께 사라지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주민들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단절을 개별 단체나 활동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험과 콘텐츠를 축적하고, 기존의 활동이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적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마을신문에 글 한 편을 쓰거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행정에 질문하며,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디어 제작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동체의 변화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효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행정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활동에 공적 가치를 부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다소 인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행정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나 소규모 문화사업, 또는 행정이 지원하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민주적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공론장을 형성하며,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공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정책적 접근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행정이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적은 공적 지원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며, 행정과 주민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과 효능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생활비 절감, 글로벌 관광, AI 첨단산업 등 주요 정책도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면 정책과 시민 사이에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바로 그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눈으로 지역을 살피고, 주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묻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것입니다.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정책의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중요한 시민 소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수원 미디어센터가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성장과 확산을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센터의 시설과 교육, 장비 지원만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구조,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및 아카이빙을 위한 기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성입니다. 공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행정의 홍보 수단이 되거나 특정한 방향의 목소리만 담아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제를 선택하고,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은 보장하되 지속가능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 차원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4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연계 강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변화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주민자치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대표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이러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미디어와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주민자치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알린다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직접 통제하거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할 때 주민자치는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주민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의 정책이 되는 도시를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이미 수원에서 수많은 주민이 만들어 온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궈 온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나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주민의 민주적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을 유지하는 공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안정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원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그래서 수원시의회와 행정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공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원 조례 제정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이 미디어의 주체가 되는 도시,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의 정책이 되는 도시. 그것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수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MEMO

지정토론 ❷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현장의 제언

– 매탄마을신문의 14년 여정과 주민 주도 마을 기록의 명분 –

권미숙 | 매탄마을신문 편집장

1 14년 차 매탄마을신문이 증명한 효능감과 치열한 현장의 현실

1.1 구체적 사례로 본 마을신문의 효능감과 공동체적 가치

1)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 미디어가 만들어 낸 변화

◦ 매탄마을신문은 2013년 첫 발간 이래, 현재 매달 5,000부(타블로이드 8면)를 지면으로 엮어내며 거대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동네 이발소 사장님, 등굣길 안전을 지키는 학부모 등 이웃들의 소소한 삶과 지역 의제를 기록해 옴.

◦ 주민이 기사의 작성자이자 주인공이 되는 경험은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단절된 이웃 간의 대화를 트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묶어내는 동력이 됨.

◦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동네의 문제를 주민기자의 눈으로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효능감을 만들어 냄.

◦ 신문을 발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봉사자들이 매달 신문을 들고 동네 상가와 아파트 등을 직접 다니며 배포함. 신문 전달 과정 또한 이웃의 안부를 묻고 소통을 트는 현장 활동임.

◦ 이렇게 축적된 14년의 기사들은 마을의 역사가 되었고, '매탄동의 삶'을 기록하는 생활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됨.

1.2 10년의 공모사업을 거쳐 완성한 주민 후원 자립 모델과 생존의 고민

1) 공모사업 탈피 후 맞이한 홀로서기와 현실적 한계

◦ 2022년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주민 후원금은 지속적인 바탕이 되었으며, 최근 4년간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완전한 비영리 자립 구조를 일궈냄. 특히 작년 11월 첫 '후원의 밤'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짐.

◦ 그러나 14년 차 미디어조차 매달 인쇄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염려해야 하는 치열한 현실 속에 있으며, 예산 단절로 사라지는 타 마을미디어들의 현실처럼 연말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하는가'라는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됨.

2 관(官) 주도를 탈피하고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화 방안

2.1 관의 실적용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 미디어 생태계 조성

1) 기록의 주권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 마을미디어가 행정의 실적이나 일회성 '관(官)' 사업으로 다뤄지는 순간 현장의 자율성과 진정성은 훼손됨. 행정의 역할은 콘텐츠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기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임.

◦ 개별 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카이빙(기록 보존), 공용 공간·장비 활용,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보장할 제도적 조례 제정이 절실함.

〈공모사업 의존·관 주도 구조 vs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제도화 모델 비교〉

구분	기존 공모사업 및 관(官) 주도 방식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제도화 모델 (제언)
기록의 주체	행정의 평가 및 실적 중심 기록	**주민의 삶과 시선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 기록**
운영 기반	정산 및 성과 보고에 치중된 단년도 사업	**주민 후원/자립 기반(후원의 밤 등) + 행정 인프라 지원**
제도적 역할	일회성 예산 배분 및 관리 통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기록의 역사적 자산화**

2.2 단위 공동체 간 연대와 리터러시 역량 강화 지원

1) 상호 연대·협력 구조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체계 마련

◦ 마을미디어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단위 공동체 간의 소통과 상호 연대·협력 구조(공동 협의체) 구축이 필수적임.

◦ 주민 참여 기반 콘텐츠 제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축적된 14년의 기록이 보존되는 통합 아카이빙 구축이 행정적 인프라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3 결언

3.1 주민의 손으로 쓰이는 마을의 내일을 위하여

◦ 마을의 기록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함. 그 기록의 주인도, 마을을 움직이는 동력도 모두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임.

◦ 이번 의정토론회가 마을미디어를 행정의 하부 사업으로 다루는 틀에서 벗어나, 14년 동안 매탄마을신문이 지켜온 주민 주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지정토론 ❸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제도화 방향

김은정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1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대적 가치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중심의 정보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 주민들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이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과 지역 현안을 직접 기록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주권'의 핵심 현장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수원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과 공공인프라의 연계 속에서 자리를 잡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고민과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추구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지향점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전국 각지의 지역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민 미디어 권익 증진 및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바라보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핵심 지향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 자치·문화의 주체'로의 인정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은 행정이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원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주민 자치, 마을공동체 복원, 지역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이자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미디어센터와 풀뿌리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선순환 상생 생태계'

미디어센터는 방송 제작 장비, 스튜디오 공간, 전문 교육 인프라를 갖춘 공공 거점 기관입니다. 반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활동 주체입니다. 미디어센터가 마을공동체미디어에게 일방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끌어주기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미디어센터는 인프라와 역량 강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 곳곳으로 미디어 활동을 확산시키는 '선순환적 협력 모델'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제작 결과물 중심에서 '주민 참여 과정' 중심으로의 가치 전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성과는 단순 조회수나 콘텐츠 제작 건수 등 정량적 수치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콘텐츠(한 편의 영상·라디오, 한 줄의 신문 등)를 제작하는 과정 주민 간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마을의 현안이 공론화되는 '공동체적·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조례 및 정책 추진 체계 부재로 인한 '단발성 지원'의 구조적 한계

제도적 기반과 공공인프라 연계 체계가 미비한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구조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습니다.

1) 행정·예산의 변동성에 따른 활동의 단절

- 제도적 안정성 부재: 조례라는 법적 근거와 연계별 정책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예산은 매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담당 부서의 관심도에 따라 쉽게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 현장의 악순환: 예산 지원이 갑작스럽게 끊기면 어렵게 역량을 쌓아온 주민 활동가들이 이탈하고, 힘들게 구축한 활동팀과 주민 소통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위축되거나 해체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 명확한 비전과 중장기 추진 전략·계획의 부재

- 목표 없는 사업 추진: 지자체 또는 미디어센터 차원의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명확한 비전·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이 지자체의 종합적인 미디어·문화·공동체 정책 청사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위치표시(Positioning)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계별 성숙 전략 상실: 신규 모임 발굴부터 단체 성장, 자립 및 지역 사회 공론장 형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추진 전략)이 없다 보니, 매년 동일한 수준의 일회성 사업이 되풀이되는 '제자리걸음'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3) 단기 공모사업 중심 운영으로 인한 피로감과 자율성 위축

- 행정력 낭비: 1년 단위의 단발성 공모사업 구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들이 매년 초 사업 신청서 작성과 매년 말 복잡한 정산 업무 등 행정 처리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 본연의 가치 훼손: 정작 중요한 주민 간 소통, 지역 현안 기획, 다양한 미디어 활동 등 풀뿌리 미디어 본연의 역할보다 '가시적인 성과', '행정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공공인프라(미디어센터 등)와의 파편화된 협력

- 공식 연계 지침의 부재: 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간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책 지침이 없다 보니, 미디어센터의 장비·공간 대여나 교육이 파편적·일회성으로 제공되는 데 그칩니다.
- 통합적 지원 미비: 미디어센터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공적(공공) 역할을 법적·행정적으로 부여받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량적 성과 평가

- 부적절한 잣대 적용: 조례 및 정책 목표를 통한 공익성 인정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일반 시혜적 보조금 사업과 동일한 정량적 잣대(단순 콘텐츠 제작 건수, 조회수, 참여 인원 등)로만 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 정성적 가치 소외: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주민 관계망 회복', '마을 공론장 형성', '미디어 복지 실현'이라는 깊이 있는 정성적·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타 지역 미디어센터 사례 깊이 보기

여러 미디어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 의제 발굴의 핵심 도구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 ▸ 주민자치 AI 아카데미: 시범사업에서 정규·계속사업으로의 확장과 '주민 리더·미디어 활동가' 양성
- ▸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디지털 및 AI 기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성공을 거둔 것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역시 단발성 제작 지원을 넘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와 주민 리더를 양성하는데 체계적인 교육 및 실천 모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table>
<tr><td>단계별·대상별 맞춤형 확대 (시범 → 정규 → 계속사업)</td><td>▸ 진입(시범)단계: 마을공동체미디어 진입을 희망하는 주민 모임이나 신규 활동가, 실무진을 대상으로 기초 기획 및 미디어 제작 실습을 소규모로 시범 운영하여 현장 안착 가능성을 검증
▸ 성장(정규)단계: 지역 내 전 동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수십 회에 걸쳐 기본 교육, 심화 제작 실습,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규모 정규 지원 사업으로 발전
▸ 자립(계속)단계: 분기별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운영과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학습 생태계 구축
<table><tr><th>2025(시범)</th><th>2026(정규)</th><th>2027(계속)</th></tr><tr><td>2회, 93명
실무진·임원진 구분 운영</td><td>45회, 1,062명
성북구 20개 동 전체 참여</td><td>47회(계획)
의제 발굴 워크숍 신설</td></tr></table></td></tr>
<tr><td>주민 리더 중심의 미디어교육과 마중물 효과 (확산효과)</td><td>▸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모집하기에 앞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및 주민 리더를 선제적으로 교육합니다.
▸ 리더들이 먼저 미디어 기획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추게 되면, 이들이 각 동과 지역 사회로 돌아가 자체적인 주민 미디어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전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리더 교육이 동별 미디어 활동으로 파급되고 다시 일반 주민의 참여로 이어지는 강력한 마중물 효과를 증명합니다.</td></tr>
<tr><td>단순 제작 교육을 넘어선 '마을 의제 발굴 및 공론장'으로의 진화</td><td>▸ 매회 교육마다 설문과 피드백을 통해 다음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마을 의제 발굴 미디어 워크숍'등을 신규 편성합니다.
▸ 연초에 집중적인 기획 워크숍을 운영하여, 단순한 영상·라디오·신문 제작 기술 학습을 넘어 지역의 숨은 현안을 탐색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의제를 공론화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안 콘텐츠를 제작하는 고도화된 모델로 진화시킵니다.</td></tr>
</table>

2) 안성미디어센터

- ▸ 단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넘어선 '시민 미디어 생태계 및 인적 선순환' 모델
- ▸ 안성미디어센터의 공동체 미디어 사업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참여 단체 및 구성원의 양적·질적 성장, 단체별 활동 공유회/미디어 강사 활동/타 기관 연계 사업/축제와의 다각적 연계 등 전문 활동가로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연도별 단계적 성장 및 추진경과

▸ 매년 참여 단체, 구성원, 콘텐츠 제작 건수 등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성장하며 안성 미디어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분	단계(방향)	규모	주요 성과 및 연계 활동
2023	기반 조성 및 가능성 검증	· 8개 단체 · 48명 참여 · 콘텐츠 41건	•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연계 라디오 공개방송 참여 • 단체별 자체 활동 지원 • 미디어 페스티벌·찾아가는 상영 등 협력
2024	사업 정착 및 단체의 다양화 (청소년, 청년 농부, 공무원, 독립서점, 발달장애인 등)	· 8개 단체 · 41명 참여 · 콘텐츠 67건	• 경기마을미디어 공모전 대상 •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연계 라디오 공개방송 참여 • 활동 공유회(미니 공개방송) 운영 등 지역 행사 연계 • 미디어 페스티벌·찾아가는 상영·청소년 미디어 캠프 등 협력
2025	저변 확대 및 네트워크 다각화	· 12개 단체 · 79명 참여 · 콘텐츠 112건	• 스타필드 안성 연계 라디오 공개방송 참여 • 매체혼합 형태 지원 도입 • 미디어제작단 운영 등 외연 확장(스튜디오 교양 프로그램 제작) • 미디어 페스티벌·찾아가는 상영·시네마 콘서트·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등 협력
2026 (10월 까지)	고도화 및 AI·신기술 미디어 확장	· 10개 단체 · 59명 참여 · 콘텐츠 121건	• HiKR MEDIA ART 공모전 수상 • AI, 사진 매체 지원 도입 • 미디어제작단 + 사진기자단 운영 • 미디어 페스티벌·찾아가는 상영·시네마 콘서트·메모리 인 안성(사진, 영상, 촬영, 편집) 기록사업 등 협력

핵심 성공 요인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연계 특징

① '단순 제작 지원'을 넘어선 다각적 지원 체계

• 공공방송 및 축제 송출 연계

: OBS FM 라디오 방송 참여,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안성 스타필드 연계 라디오 공개방송, 미디어 페스티벌 연계 공개방송 등 주민이 제작한 콘텐츠가 실제 공공채널과 축제 현장에서 대중과 만나도록 판로 확보

•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

: 찾아가는 상영, 단체별 활동 공유회 미니 공개방송, 시네마 콘서트 등 센터 인프라와 결합하여 미디어 활동 확산에 기여

② 미디어 기술의 확장

• 영상·라디오 → 매체혼합, AI, 사진, 영상스튜디오

: 초기 단순 영상·라디오 위주의 활동에서 최근에는 매체혼합, 사진, AI 기반 미디어아트 등 미디어 기술 변화에 따른 매체 확장을 통해 기술적 폭 넓힘

③ 인적 선순환

• 활동가 영역 확장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이 단순 활동가로 남지 않고, 안성시의 지역 기록자 및 공공사업 수행자로 성장

: 미디어제작단 및 사진기자단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종합 교양 프로그램 제작, 메모리 인 안성 기록사업 사진·영상 촬영· 편집, 미디어센터 사업·교육 등을 카드 뉴스로 제작·홍보하는 등 '지역 미디어 인재 선순환 구조' 완성

5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4대 정책 제안

수원시가 단발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전국에서 대표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상생 모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1) 「수원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

- ▸ 마을공동체미디어(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공동체라디오 등)의 공익적 활동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 ▸ 특히 조례 내에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인프라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수원시미디어센터를 '마을공동체미디어(공공미디어) 공적(공공)기관'으로서의 연계 체계 필요

- ▸ 수원시미디어센터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공적(공공) 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 ▸ 미디어센터를 바탕으로 [교육 – 장비·공간 상시 지원 – 컨설팅 – 송출 및 아카이빙]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민·관·의회·미디어센터가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 구축

- ▸ 수원시의회, 수원시 관련 부서, 수원시미디어센터, 마을공동체미디어(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활동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4)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 ▸ 신규 활동가를 발굴하는 '새싹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집중 단계', 신규 활동가를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동반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자원 배분 체계를 수립하여 단발성 지원을 극복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미디어 제작'을 넘어, 주민들이 마을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따뜻한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의정토론회가 수원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튼튼한 조례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역시 전국의 미디어센터 네트워크와 함께 수원시의 뜻깊은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MEMO

지정토론 ❹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 제정은 행정의 책무이다.

민진영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는 시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시민이 자신의 삶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며, 공론장을 만들어 갈 권리를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 발제를 읽고

발제-1 :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과 조례 – 고영준

☞ 적극적 동의되는 부분

1.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주민들의 미디어로 자발적 미디어 활동이 지속가능 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쪽)
2.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 예산과 지원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다. (5쪽)
   - 사례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조례
3. 지속적인 지원 사업은 기존 단체의 지속과 안정화, 새로운 단체의 형성과 지역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9쪽)

〈질문〉

1. 2025년 2억 4천에서 1억 7천으로 삭감된 이유는? 단체들의 대응은? 12쪽

발제-2 :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현황 및 역할 – 김윤지

☞ 마을공동체미디어 어려운 현실

1. 센터 예산은 30% 늘었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 공모 비중은 15.2%에서 4.7%로 줄어듦. 2019년 총예산 4억 9,389만 중 7천 5백만, 2026년 6억 4,067만 중 3,000만 지원 (18쪽)
2. 공모사업 지원 단체는 늘었지만 (2024년 16 단체, 2026년 22단체) 지원은 삭감되었음. (단체 당 330만→250만) (19쪽)

1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왜 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흔히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전문적인 언론기관을 말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단순히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시민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미디어를 만들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언론사나 전문적인 기자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닌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다.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실제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다.

2 미디어 환경은 변했지만 시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다

거대 플랫폼과 상업적 알고리즘이 정보의 유통을 좌우하고, 자본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노출되는 현실에서 평범한 시민과 작은 공동체의 목소리는 쉽게 묻힌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개발 과정에서 사라지는 골목과 오래된 가게, 주민들의 삶은 누가 기록할까?,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전달되고 있을까?, 지역의 기후위기와 돌봄, 교육, 교통 문제를 주민 스스로 취재하고 이야기할 통로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전문 언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문 언론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생활 의제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공론장이다.

3 조례는 행정의 선물이 아니라 행정의 책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은 시혜가 아니다. 시혜는 주는 사람이 결정하고, 받는 사람은 고마워해야 하는 관계로, 행정의 정책 방향이나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달라야 한다.

조례는 지원 여부를 행정의 호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원칙과 행정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례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

4 공공 미디어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자

첫째,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이 콘텐츠의 방향이나 표현을 통제해서는 안 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적·행정적 입장과 다른 의견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미디어 접근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도 제작과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미디어 교육과 제작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회성 공모사업이나 단기적인 교육만으로는 공동체미디어가 성장하기 어렵고 운영비, 장비, 교육, 공간, 콘텐츠 유통, 활동가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연결되어야 한다.

미디어센터가 장비와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의 활동가와 공동체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네트워크를 만들며, 주민들의 콘텐츠가 더 넓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행정이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마을미디어 활동가, 시민사회, 미디어센터, 전문가, 의회와 행정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글을 마치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는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이 큰 도움이 되었다.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은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10년 6차례의 준비모임 이후 2011년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에 제안하여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2012년 행정이 함께 1년 동안 수원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10회), 시민간담회 1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소위원회(6회)를 진행했으며 2013년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센터장 및 직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시민이 제안, 수원시가 정책으로 반영한 모범 사례다.

이미 경기도는 2026년 3월 4일부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과 지원뿐 아니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연계, 위원회 설치, 시·군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제 수원시도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은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의 경험을 축적해 온 도시로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미디어 활동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못한다면 시민참여는 행정이 마련한 회의나 행사

에 참석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시민참여의 마지막 단계는 시민 스스로 말하고, 기록하고,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가 바로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조례 제정은 행정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조례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학계, 시민사회, 현장 활동가가 토론, 합의하여 수원시가 시민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권유하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연혁 (출처 –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2011년 11월 – 정책과제 제안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시민참여 전문위원회에서 수원미디어센터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안
2012년 3월 미디어센터 건립 준비위원회(11명) 구성
2013년 수원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3년 1기 운영위원회 구성(20명)
2014년 3월 27일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개관

◎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과정 (출처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총회 자료집)

〈수원미디어센터 설립 준비모임〉
2010년 8월 24일, 9월 7일,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8일
〈수원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2010년 10월 21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강당 시루봉)

▶ 2012년

-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3월 22일, 4월 27일, 5월 16일, 5월 25일, 6월 29일, 7월 27일, 8월 24일, 9월 14일, 10월 26일, 11월 16일)
- 설립 추진위원회 소위원회 (6월 12일, 7월 17일, 8월 21일, 9월 10일, 10월 17일, 11월 13일)
- 수원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시민간담회 (9월 14일)

▶ 2013년

-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1월 11일, 3월 8일)
-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5월 15일, 8월 7일, 8월 21일, 12월 11일)
-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소위원회 (8월 13일, 8월 20일)
- (9월 13일)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서류·면접 심사
- (10월 30일)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면접 심사
- (11월 27일)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인사위원회
- (12월 11일)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인사위원회

MEMO

MEMO

MEMO

MEMO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발행일 | 2026년 11월 1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인쇄처 | 디자인세창

2026년 제1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수원특례시의회 SUWON SPECIAL CITY COUNCIL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